濠州및 東南亜 紀行 (完)

비올빈 建築家協会長과 악수를 교환하는 최회장

崔昌奎
韓国建築家協会長

鰐魚도 다 같은줄 알았는데 五, 六種이 있다. 주둥이 뾰족한 놈.色이 다른놈. 이빨이 밖에까지 나온놈 等이다. 그러나 다 같이 코와 눈의 線이 水平인 것이다. 물속에 온몸을 잠기고 코로 숨쉬고 눈으로 敵을 노리는 것이 自然의 攝理인가 보다. 무더운 日気였으나 몸이 오싹할 만큼 징그러웠고 무서웠다.

午後에는 泰國建築家協会를 訪問했더니 事務職員 男女二人만이 있다. 会長은 自己 事務室에 있다는 것이다. 찾아온 事由를 말했더니 몹씨 당황해서(이들은 우리가 出発前 便紙에 對한 答狀도 없었다.) 四方에 電話를 걸고 야단이다. 芳名録에 署名들을 하고 선물을 내 놓았더니 더욱 놀란다. 조금후 会長과 連絡이 되었다면서 기다리라고 한다. 이윽고 車가 왔다. 따라온 親旧가 英語를 잘한다. 모두 모시고 会長宅으로 오라는 것이다. 協会職員들이 自己네 会誌며 其他 冊들을 車에다 싣는다. 우리에게 줄 모양이다. 会長 Mr. Chira氏가 門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人事 交換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선물교환, 記念 撮影을 하고 事務室을 案内해 주어서 보았다. 再昨年 韓國에 간일이 있다면서 雪嶽山寫眞을 自己房에 걸어놓고 있었다. 韓國의 木刻이며 木器等도 놓여있었다. 이 親旧는 現役大領이다. 곧 별을 단다고 한다. 國際派에 属하는 모양이다. 図面들을 보니 요즈음의 欧美의 흉내가 많다. 그는 自己가 設計한 Indra 호텔에서 점심을 待接하겠다기에 모두 같이 갔다. 아마도 방콕市内에서는 一級 호텔인가보다. Interior도 좋았다. 아주 豪華로운 中國式 食堂에서 愉快한 談笑를 하면서 食事를 했다. "스테이지"에서 벤드와 노래가 계속되고 Ball Room에선 춤추는 사람들도 있다. 이사람들은 点心時間에도 춤을 추는 모양이다. 거의 日本曲과 韓國曲을 泰國말로 노래한다. 元正洙氏가 저曲은 韓國노래라 했더니 Chira氏가 어색하게 웃는다, 食事後 屋上「풀」이며 貴賓室等을 案内해 주었다. 우리는 그와 將次相互会員의 交歓과 出刊物, 建築情報의 交換, 合同展示会等을 提議했더니 大讃成이라면서 公式으로 相議해서 꼭 実践해 보자고 한다. 또 韓国建築家의 泰國 및 東南亜進出問題도 論議해 보았는데 그리 달가워하는 눈치가 아니다. 異常 하게도 泰國은 長官도 市長도 호텔支配人도 社長도 団体長들도 警察署長까지도 現役軍人인데는 놀랐다. 이나라의 法이 그리된 모양이다. 구테타가 가끔 잘 일어나지만 王만은 絶対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王을 안섬기면 國民이 呼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테타를 일으켜도 第一條件은 王을 잘 모시겠다는 것이여야 한다고 한다. 그날밤 호텔에서 자려고 하는데 元兄과 俞兄의 房에서 갑자기 悲鳴이 나서 달려가보니 元兄은 침대위에 서서 떨고 있고 俞兄은 손에 手巾을 들고 구석에 서있다. 도마뱀이 침대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나는 浴湯에서 큰타올을 가지고 나와서 뱀을 찾았다. 구석에 붙어있는 것을 타올을 씌우고 발로 밟아댔다. 도마뱀은 배가 터지고 꼬리는 떨어져 나갔다. 나는 타올채 쥐어서 "보이"에게 주며 무슨 호텔이이모양이냐고 호통을 쳤더니 옆방에 있던 美國人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른다. 나는 큰소리로 "네房에 뱀이 나오면 어떡할테냐"고 소리쳤다. 하기야 그때가 밤 2시이니까. 元兄이 毛布를 들고 내

방에 와서 침대속으로 끼어들며 나는 여기서 자겠다고 한다. 모두들 웃어댔다.

8月21日(火曜日)

아침 9時에 호텔에서 Check Out를 하고, 짐은 모두 Lobby에 내려놓고 있노라니 玄関처마의 国旗台에서 太極旗를 내린다. 이 siam Hotel은 우리가 4日前 들었을 때 記帳을 하고 房에 들어서 내려다보니 太極旗를 掲揚해 주었고 우리가 留宿하는 동안 継続 掲揚해 주었다가 오늘 우리가 떠나니까 旗를 내리는 것이다. 大概 어느 나라이고 自己네 Hotel에 投宿한 손님이 Business나 観光客이 아니고 公式的인 任務인 경우, 그손님의 나라 國旗를 올리는 法이다. 우리의 旅券에 国際会議라고 있으니 公式的인 訪問인줄 알고, 太極旗를 올려 준 것이다. 理由야 어쨌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몹씨 기뻤고, 또 으시댔다. 韓国人임을 더욱 実感했다. 異常하게 가슴이 뭉클했고 言行도 삼가야 겠다고 느꼈다. 사람은 外国에 나갔을 때 더욱 祖国을 알고 愛国心이며 矜持가 커지게 마련이다. 10時에 玉先生이 일부러 作別人事를 하러 호텔에 찾아왔다. 우리도 고마웠고 그도 퍽 아쉬웠지만 多情한 離別人事를 나누고 空港으로 나갔다. 11時50分発 CX. 700機로 午后 1時에 香港에 到着했다. 機内에선 印度꼬마가 通路를 왔다갔다하며 놀기에 귀여워서안아도 주고 말도 걸고 寫眞도 찍어주었더니 그 父母가 웃으면서 Thank You 를 連発한다. C. X. 機는 越南上空을 지나 香港쪽으로 날은다. 내려다본 越南땅은 密林이 푸르다 못해 검게보인다. 저 密林 속에서는 아직도 同族끼리 戦争을 하고 있겠지. 얼마전 까지도 우리 國軍들이 저 密林속에서 勇名을 떨쳤으려니 생각하니 이제 우리는 無心하게 그 上空을 나르고 있구나 하고 異常야릇한 생각이 든다. 왜 저렇게 아름다운 숲속에서 人間은 싸우고 죽이고 해야만 하나. 機械文明은 이렇게 超速으로 地球를 좁혀가는데 各国의 G. N. P. 들도 上昇路에 있는데 自然은 이렇게 아름답고 悠久한데 말이다. 出発時 空港에서 七名의 修女들을 보았는데韓国人같아 보인다. 짐들이 굉장히 많다. 기타도 있다. 가까이 가보니 韓国말을 한다. 말을 걸고 어찌된 일이냐고 했더니 그들도 우리를 韓国人같기도 하고 日本人같기도 해서 망서렸는데 亦是 韓国이였다며 기뻐한다. 그들은 七年前에 西独에 가서 工夫하고 歸國한다면 " 貞陵 修女院에 도라간다고 한다. 그런데 公文을 보이며 西独旅行社에서 寄留処마다 호텔等을 다 予約해 놓았는데 살펴보니 香港의 호텔이 적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여간 가보자 하고 搭乗했는데 機内에서 入国証을쓰는데 香港寄留住所와 호텔名을 모르겠다기에 나는 방콕에 到着했을 때 当한 생각이 나서 그欄에 모조리(7名) Fortuna Hotel이라고 써 주었다. 그들은 이 호텔은 先生님들이 드는 Hotel이냐고 묻기에 아니라고 하니 걱정들을 한다. 우리는 걱정마시라고 알아서 해드리겠다고 安心을 시켰다. 香港空港에 前景哲氏의 조카가 나와 있었다. 갈 때 오는날을 알리고 왔더니 호텔도 다 予約해 놓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修女들의 짐을 다 날라주고 두어번 거리며 카토릭関係에 予約된 호텔사람을 찾았으나 없다. 할 수 없이 Fortuna Hotel에서 온 사람에게 事由를 이야기 했더니 그는 快히 修女들을모시고 가겠다하며 호텔 費用은 그 航空社에서 받겠다한다. 그에게 来日 이들의 出発機便도 내가 確認해 주라고 부탁하고 밤에 너의 호텔에 가서 確認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들과 헤어져서 가려하니 引率者格인 先任修女가 눈물이 글썽해서 고맙습니다를 連発한다. 香港은 颱風이 와서 바람이세차게 불고 비도 가끔씩 내렸다. 저녁에 Star Verry로 香港 Side에 건너가서 New Seoul食堂에서 前兄의 조카에게 저녁을 待接받았다. 서울서온 張氏와 쑈를 본다고 나섰다가 헛탕을 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金漢根氏와 元正洙氏가 外出한다고 하니 모두가 다 따라나선다. 나는 안나가기로 했다.

나는 弄談으로 外出하거던 Fortuna Hotelに 가서 修女들의 안부나 살펴보라고 하고 破戒를 시키면 안된다고 했더니 弄談도 너무 甚하다면서 웃어 댔다. 事実 金兄과 元兄이 이 修女들을 찾아가서 来日 이들의 出発과 食事며 投宿費用 関係等을 호텔支配人에게 確約하고, 그들을 安心시키고 서울에 가서 만나자 하고왔다. 그들은 밤중에 까지와서 돌보아주니 故郷이 第一이고 故郷사람이 第一이라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修女들이거나 女子들이기 때문이 아닌 오직 修女 制服을 입었더라도 韓国人이기 때문에 自進해서 도와준 것뿐이다. 또 우리 亦是 韓国人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New Seoul食堂에서 中学一年쯤 되는 学生이 食事를 나르고 있었다. 그집의 食口인줄 알았

더니 "알바이트"나온 韓国学生이다. 放学中에 일한다는 것이다. 그의 父親은 큰 事業을 하는 富豪인데도 外国人学校에 다니며 中学二年生이다. 自己班에는 30名이나 韓国人이고 印度, 英国, 中国, 日本 等 各国人이 있는데 一等을 했고 班長이란다. 그 学校에서는 韓国人이 판을 친다고 한다. 香港엔 外国人 学校가 많은데 自己네 学校엔 韓国人이 가장 많다고 한다. 中学 一年때 왔는데 처음에는 英語로 苦生을 했는데 一年이 지나니 아무 不便도 없다면서 모든 学科를 英語로 가르친다고 한다. 香港만 해도 西欧化가 되어서 富者집의 学生들도 放学中에는 돈벌이를 하는구나 이런일은 그리 나쁜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서울집에 中学三年인아들놈이 생각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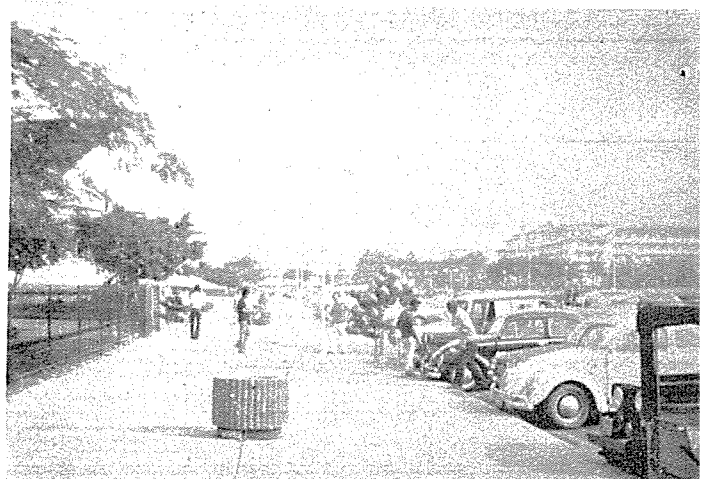
8月22日(水)

이때까지 旅行中 一行은 거의 쇼핑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各国의 商品이 거의 다 香港에 있으며 本고장보다 싸다는 것을 알았고, 香港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무겁게 싸들고 다닐 必要가 없어서였다. 그래서 오늘은 各自 쇼핑하는 날로 定했고, 午前中에는 인크라인을 타고 山頂에 올라가서 全市街를 求景했고, 中共쪽 国境線을 바라보았다. 市内에 내려와서 申鉉尚氏에게 電話를 했더니 저녁에 Korea Center로 7時에 오라는 것이다. 勤務時間이어서 나갈수 없다고 한다. 거리를 휘돌아다니다 Mandaring Hotel을 보고, 銀行도 보고, 建築現場도 보다가 7時에 Korea Center에서 申氏를 만나 저녁待接을 받고 明朝 自己事務室로 오라는 것이다. 申氏의 案内로 밤거리도 求景하고 쇼핑들도 했다. 申氏는(家協 正会員임) 昨年에 왔는데 中国人 設計事務室에서 Chief로 있고, 月給이 美貨 1,200$이나 되고, 2個月間의 Test後 一年契約을 했다가 三個月만에 五年契約을 했다는 것이다. 香港에는 建築家가 모자라서 実力만 있으면 問題없다는 것이다. 自己도 이제는 空気를 알고자리도 確固하니 서울의 親舊들을 불러와야 겠다는 것이다. 나는 듣던中 반가운 이야기여서 申氏에게 서울에는 젊고 有能한 建築家가 남아 돌아가니 꼭 그들의 進出의 길을 터 달라고 부탁을 했다.

거리에는 毛主席 万才라고 쓴 큰 看板도 있고台灣物産舘도 나란히 있다. 그런데 서로가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이다. 우리라면 서로 으르렁댈텐데 그들은 泰然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韓国飲食店도 到処에 많이 있다고 한다. 特히 Bar나 Night Club에서는 韓国女子가 판을 친다고 한다. 20~30名의 韓国女子가 있는집도 있다고 한다. 왜 인지는 몰라도 韓国女子가 第一 예쁘고 各国 손님에 好評이란다. 異常한 일도 다있다. 하기야 印尼나 泰国, 馬来女子들은 작고 까맣고 노린내가 나는데 比하면 比할 바가 안되지. 그런데 香港의 많은 韓国人들 中에는 寒心한 親旧들도 많은 모양이다. 国際自由港 香港! 이 적은 都市国家도 英国 係列에 属한다. 滋味있는 이야기는 路上에서 싸우면 警官이 双方을 다 잡아서 空港에 데리고 가서 強制出国을 시킨다는 것이다. 即 大英帝国을 더럽혔다는 것이다. 어디엘 가나 Royal이 으시대는 곳이다. 그러나 追放 当할 때도 내겐 돈이 1,000$ 있다고 하면 3日間을 더 머무르다 나가라 即 그돈을 香港에서 다 쓰고 나가라는 式이다. 돈 10,000$이있다면 싸워도 当分間은 追放을 안当할수 있다는 것이다. 大英帝国도 돈에는 別道理없이 탐이 나는모양이다.

8月23日(木)

오늘은 午後 四 時에 필리핀 마닐라로 떠나야 될 날이다. 午前中에는 各自가 쇼핑을 하고, 午後 2時에 호텔에 集合키로 했다. Peninshura Hotel C. P. A. 에 가서 機便을 Conform하고 百貨店에가 보았다. 約一個月 前부터 物価가 50%나 올랐다고 한다. 弗貨切下로 그렇다는 것이다. 살 物件도 없지만 歸路이고 旅費가 딸랑딸랑하니 쇼핑이고, 무어고가 없다. 이젠 旅行者들도 香港에서의 쇼핑은断念해야 할때 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되면 自由港의 性格도 흩어지고 香港의 이메이지는 달라지는 것이다. 商人들 間에는 이런 問題도 論議되고 있



마닐라 호텔과 前面公園

다고 들었다. 홍콩의 장래가 퍽 우려되는 重大한 일이다. 美弗地下가 地球上에 몇이 없는 自由貿易港을 없애게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다. 午後 四時에 出発해서 다시 南下 約一時間 半後에는 比律賓의 首都 마닐라 空港에 내렸다. 사람은 적고 비가 오고 있었다. 空港은 工事中이라 엉망이다. 손님이 적으니 호텔案內人들이 20名 程度가 우리一行에 달려들어 自己네 호텔에 가자고 야단들이다. 짐을 날라준 Porter가 팁이 적다고 더달라고 손을 내민다. 空港內에서 換金을 하여서 잔돈이 없어 Porter 三名에게 10"페소" 를 주고, 나누어 가지라고 했는데 혼자서 다 가지고 갔나보다. 나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美貨50¢짜리를 하나 꺼내서 주었더니 좋아라고 받아갔다. 밖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一行中엔 雨傘도 없다. 나와 元正洙氏만이 香港에서 산 雨衣를 입고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駐車場에 가서 호텔車가 있나 보았더니 BAY VEW HOTEL이라고 쓴 마이크로 BUS가 있다.

運転手가 女子이다. "우리 一行은 六名이다. 너의 호텔은 어떠냐?" 고 했더니 自己네 호텔은 그리 좋지않고 마니라호텔이 좋다고 하며, 이車로 모셔드리겠다고 한다. 우리는 雨中을 달려서 乘車하고 市內로 달렸다. 雨中의 海辺道路를 달리니 椰子나무 街路樹가 바람에 쓸어질듯 휘어져 멋있는 風景이다. 저녁무렵이어서 灯불이 켜지기 始作했다. 한쪽은 바다, 한쪽은 建物이다. 넓고 긴 道路이다. 밖을 熱心히 내다보다가 "야 KOREA GARDEN이다"하는 소리에 右側을 보니 AROHA HOTEL 一層에 「RESTAVRANT KOREA GARDEN」 이라 쓴 네온이 켜져있다. 저녁은 저곳에서 먹겠다고 하며 호텔에 到着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이다. 二次大戰時 美軍司令部였고, 그后도 各国元首들이 머물렀다고 한다. 古風의 집인데 外様은 大端치 않으나 內部는 아주 좋다. 스페인 스타일이다. 짐을 풀고 全員 LOBBY에 나와서 Boy와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니 玄関에 装置되어 있는 "마이크" 를 거리에 대고 큰소리로 택씨를 부른다. 珍奇한 光景이다. 많은 車가 앞길을 지나가나 빈車가 잘 오지를 않는다. 一行中 누군가가 마이크에 대고 "TAXI COME OVER HERE!"를 連呼했더니 세台가 단번에 들어온다. 우린 2台에 分乘하고 KOREA GARDEN으로 가서 불고기와 김치 찌개백반을 먹었다. 비가 멎었기에 우린 海辺가를 걸어서 호텔로 돌아왔다. 필립핀은 現在 大統領 選擧때의 非常戒嚴이 아직도 解除가 안되어 있어 12時면 通禁이 있다한다. 그런데 거리에는 軍人이나 警官이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은 이번 旅行中 곳곳에서도 있었다. 濠洲는 勿論이고 방콕에서도 二名의 將校를 보았을 뿐 都市나 農村에 어느 곳에서도 軍人을 볼 수가 없었다. 交通警察도 그리 없다. 서울거리의 그 数많은 軍人을 보아온 우리에게는 異常할 뿐이다. 이나라의 軍人들은 大体 어디에 있을까? 싱가폴의 兵営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 였다. 泰国 메남江에서 軍艦을 여러 隻 보았으나 艦上에도 4, 5名의 軍人이 있었을 뿐이다. 오직 아침 6時頃마닐라 RIZAL公園에서 우리의 鄕土 豫備軍같은 一個小隊가 体操를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非常中이고 거리의 地理도 잘 모르고 해서 밤에는 세탁을 하고, 地図를 놓고 来日의 스케줄을 짰다. 호텔 FRONT에서 電話가 왔다. 좋은 女子가 있으니 必要하냐고 하기에 FRONT가 "뚜쟁이" 질을 하는 호텔이 어디에 있느냐? 고 호통을 쳤더니 電話를 끊는다. 조금 후에 Boy가 또 와서 女子이야기를한다. 쫓아버렸더니 또 다른 Boy가 와서 권유를 한다. 우리를 무슨 獵色旅行者들로 본 것일가? 異常한 놈들이다. AIR CON을 끄고 잤더니 房內가 무더워지고 모기가 덤빈다. 到底히 잘 수가 없다.

곰곰히 생각하다. 室內温度가 내려가면 모기가 못 덤비리라 생각해서 AIR CON을 FULL로 嫁動시켰더니 果然 모기가 脈을 추지 못한다. 잠이 달아났기에 필립핀에 對해 알아보았다. "스페인" 統治에서 JOSE RIZAL 이独立을 했고, 美国이 統治를 하다가 日本이 손을 댔고, 数千個의 多島國家로서 奇駆한 運命아래 東洋에선 그래도 가장 西欧化된 나라, 言語도 英語를 많이 쓴다. 이름도 스페인式의 "JOSE"이 "페루난도" 따위가 많고, 美·英 等의 이름과 原始的 이름으로 三大区分할 수가 있다. 나는 中学때 필립핀의 革命家 JOSE RIZAL의 伝記를 읽은일이 생각난다. 科学者이며 思想家이고 機械工이며 芸術家인 萬能의 青年 RIZAL이 "가비데"湾의 언덕위 草家 집에서 밤중엔 地球儀를 보며 世界大勢를 構想하면서 필립핀独立을 念願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日本詩人 某氏가 RIZAL을읊은 詩도 생각난다.

前略"夜半 地球儀를 안고 빙그레
웃는 가비데의 健児 RIZAL.
그의 손엔 낮엔 호미를 들고
밤엔 칼을 들었도다.
多島에 덮힌 暗雲을 雄辯으
로 몰아냈고.
마닐라灣에 烽火를 올린者!
同志의 무덤에 앉아 十字星
을 바라보며 銃劍을 다시
쥐고 密林으로 사라졌다. "(後略)

하여간 필리핀에서는 Rizal이 絶対的인 英雄이다. 全国民의 尊敬과 欽慕의 対象이요. 이 나라의 矜持요, 자랑인 것이다. 「마니라麻」이니 「마닐라로푸」라면 누구던지 다 아는바로 삼(麻)이 많이나서 麻製品이 多様하다. 数많은 島嶼에서 海産物과 特히 貝殻類가 珍貴한 것이 많다고 한다. 産業面에서는 그리 들만한 것이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오래된 싼토-토마스 大学이 있다. (그리 大端한 大学은 아니나)

野球와 籠球를 잘 하는 것도 일찌기 西欧化의 물결 탓이리라. 空港서부터 運転手며, Hotel Front며, Boy고 간에 모두 Korea라고 하니 엄지 손가락을 내밀어 "신동파" No. 1이라고 한다. 이것은 泰国에서의 **洪秀煥**의 程度가 아니다. 우리 **申東坡** 선수는 比律賓에선 神格化된 運動選手이다. 우리도 덩달아 気分이 좋았고, 籠球하는 시늉이 저절로 나온다. 카텐을 제치고 RIZAL 廣場과 바다를 내다보았더니 참 아름답다. 港口에 淀泊하고 있는 수 많은 外国船들은 다 불이 켜져있고 童話같이 幻想的이다. 廣場에 特異한 분수가 사람은 없어도色灯에 아름다웠고 水牛의 銅像은 금시라도 드려받을 것같은 姿勢이다. 이 水牛彫刻은 필리핀의 상징으로서 되어 있다고 들었다. 꼭 우리 共和黨의 황소가 黨의 像徴으로 되어 있듯이, 야자나무의街路樹는 南国의 因像에 洽足하다. 잔디도 잘 가꾸어져 있고, 公園엔 나무가 茂盛하다. 이번 熱帯地方 旅行中 어디서나 느낀 것은 熱帯樹의 울창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무가 第一 부러웠다. 이 密林의 情趣는 우리에게 가장 因像에 남을 것이다. 우린 가끔 너무도 나무가 탐나서 이 나무들을 어떻게 韓国으로 가지고 갈 수 없을가하며 자주 말들을 할 程度였다.

하기야 四時常節 高温과 湿気에서 제 멋데로 자라는 常夏의 나라들이니, 薪炭으로 伐採할 理 없으니 아마도 原始時代부터 그대로 일 것이다. 이 地球上에 남아있는 原始時代부터의 景観은 아마도 密林뿐일 것이다. 밤은 깊어가고 밖은 조용하고感傷的이 된다. 이제 4, 5일 후면 이 旅行도 終章으로 들어간다. 이제 남은 곳은 台灣뿐이다. 문득 서울 생각이난다. Mr. 엄 마져 나온 協会는 国展準備가 잘 되어가는지? 出発時 会誌가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다 配布가 됐는지? 予定대로 歸國하자 마자 理事会로구나 三団体 会長 会議도 있지 집에선 아이들이 放学이 끝나가는데 登録金들은? 事務室에서는 国展出品作을 얼충보아주고 왔는데 出品했는지? 심지어는 事務室費며 電話料金까지도걱정이 된다. 아-빨리 돌아가야지 생각하니 갑자기 焦操해 진다. 一行은 모두 곤해서쿨쿨 코를 골며 단 잠을 자고 있는데, 이 南国의 긴 밤을 나는 窓가에 앉아 넋없이 마닐라 灣을 내다보며 머리속에 萬想이 오갈뿐이다.

漢時의 **"鄕里牧童笛吹牛上인데**
異邦遊子萬感去来로다"란 句節이 생각난다, 書堂의 訓掌이 詩를 어린 나 에게 가리치며 더 나이가 먹고 늙으면 이 感懷는 **"採菊東籬下요 悠然見南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50고개를 넘어 異邦의 밤 窓가에서 겨우 그 訓掌의 말뜻을 이해할 것만 같다.

8月24日(金)

快晴의 날씨다. 7時半에 起床을 했다. 昨日 空港에서 망가진 가방의 손잡이 修理를 부탁하고 그동안의 세탁물을 다 맡겼다.

熱帯地方이라고 해도 아침은 퍽 선선하다. 太陽이 마닐라灣 水平에 떠 오르고 있다. 나는 이 맑은 空気와 爽快한 아침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金鳳善氏를 깨워서 둘이서 公園에 나가 보았다. 기가 막히게 좋은 날씨다. 바다며 하늘이며 바람이며가 멋-있는 아침이다. 公園을 거닐고 있노라니 家族全員이 어린애까지 업고 나와서 公園에서 아침 食事를 하고 있다. 잔디위에 或은 벤치위에 모여서 朝飯을 먹고 있다. 집은 더우니 이런 空気와 環境속에 모여서 朝飯을 하는가 보다. 太陽의 直射아래 바다가 보이는 樹木이 우거진 Dinning Room을 가지고 있는 마닐라市民은 幸福해 보인다.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그 사이를 異邦人처럼 서서히 거닐고 있을 뿐이다. 아—우린 여기선 確実히 異邦人이지!/露店에서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며 호텔에 돌아와 보니 아직도 모두가 자고 있었다. 깨워줄까 하다가 문득 두어 두어라 困하니깐 자겠지. 머릿속에 선득〃小善으로 自足의 남을 煩하게 하지말라"는 말이 生覚났다.

C. P. A. 와 C. A. L. 에 가서 機票를 確認하고 台灣에서 서울向 出発을 1일 延長시키고 可及的이면 福岡(日本)을 거쳐 가려했으나 어처구니없이 돈을 더 내라고 해서 結局 모두들 旅費도 달랑달랑하니 台北서 1日만 더 보내고 그냥 서울로가기로 했다. 金漢根氏만이 三寸이 계신 東京経由로 했다. 昨夜 予約한 旅行社에서 車가 왔다기에 L-obby에 내려갔더니 어여쁜 女大生이 왔다갔다 한다. 알고보니 그가 오늘 우리 案内人이란다. 모두들 신이나서 말을 걸고 車에서 그의 곁에 앉는다고 "가위, 바위, 보"까지 하며 장난을 했다.

오래 된 교회 2, 3개소부터 求景하기 始作하였다. 그 案内嬢의 이름은 "PINGKY"라고 한다. 아주 明朗하고 愛嬌있는 아가씨다. 勿論 英語로案内한다. "마니라엔 教会뿐이야""比律賓엔 RIZAL 한사람 뿐이지""너는 몇 살이야. 여기선 女子가 몇 살이면 시집가느냐"등 車中에선 PINGKY에게 集中攻撃이다. 그도 職業이라 화도 안내고 척척 우스운 対答으로 받아 넘긴다. 大学街에 갔다. 東西 두 区域으로 東部 大学街, 西部 大学街라고 한다. 学生들이 各様各色이다. 男女共学이고 服装들은거의 우리 大学生들과 같다. 女高学生들은 制服이 있는데 아주 西欧的인 멋있는 制服도 있다. 東쪽 区域의 廣場으로 들어가서 停車하고 "이 大学이 世界에서 가장 오래된 大学입니다. 1460年에 創設되었읍니다.'한다. 누군가가 '卒業生에 有名한 사람들은?" 하고 물었다. 나는 대뜸 "PINGKY. MAGSAISAI. ROMURO. AND MARCOS" 했더니 그도 어이 없다는 듯이 "여러분이 더 잘 아는군요". 하니 와!—하고 一行이 웃어댔다. 俞兄은 PINGKY 어깨에 손을 걸치고 포—즈를 取한다. 女子案内員이 오니 이렇게 明郎해 질 수야. 観光의 案内는 꼭 女子가 해야겠구나, 생각했다.

RIZAL 記念公園에 갔다. RIZAL이 革命当時 갇혔던 獄이다. 煉互造 洞堀같다. 地下室의 축축히 濕気있는 監房에 좁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 보았다. 革命児 RIZAL이 이속에서 무엇을 経倫했을가 壁을 살피니 落書도 없다. 런던 塔엔 罪囚의哀切한 落書가 있었는데, RIZAL은 落書도 안했구나. 革命詩 한 首쯤 있을 만도한데. 洞堀監房을나올 때 PINGKY만 남기고 鉄柵門을 다 닫아버렸다. 와—하고 悲鳴을 올린다. 우린 門밖에서 "RIZAL PINGKY萬才!"했더니 죽는다고 웃어댄다. 城塞위엔 砲台가 있다. 옛 모습대로다. 革命戦때 스페인 艦隊를 이 河口에서 쏘았다는 大砲다. 나포레온이 쓰든 따위의 古物大砲다. 城壁을 뒤로 돌아보았다. 가는 곳마다 젊은 男女가 抱擁하고 있다.

그때마다 PINGKY는 오—하며 여기도 저기도 한双씩 있으니 얼굴을 붉힌다. "男女가 抱擁하는 것까지 보여주느냐?"했더니 対答이 없다. 잔디밭엔 몇 개의 白色 十字架가 있다. 革命同志들의 墓라 한다. 記念建物에 들어갔다. RIZAL의 一代記가 그림으로 되어있다. 愛人이었던 日本女人의 肖像畵도 等身大로 그려있다. 왜 이 比律賓 革命客이 日本女人을 사랑했을까 하고 누가 물어본다. 나는 PINGKY가 対答하기 前에 比律賓엔 美人이 없었기 때문에"했더니 뾰루퉁한다. RIZAL이 입던 옷이며 銃, 칼, 冊床까지 있고 쓰던 日用品과 茶잔까지도 있다. 아주 規模가 적은 記念舘이다. 公園化된 内庭엔 2, 3인의 女学生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리 学生들보다 못 그리는 便이다.

市内엔 별로 볼만한 곳이 없기에 郊外 Makaty 로 가자고 했다. Makaty란 마닐라 郊外에 있는 新計劃 都市이다. 即 New Manira Plan이 実施되어 서서의 完功단계에 있다. 가는 途中에 점심을 먹고다

마닐라 灣과 해안호텔앞에서

시 떠났다. 郊外에 나갈수록 板子집도 많고 不潔한 곳도 많다. Makaty는 大端하다. 새로운 西欧式 都市가 이루어지고 있다. 高層建物들이 外様들도 멋있다. 우린 職業意識이発動되었는지 PINGKY와 弄도 안하고 精神없이 "저 집이다" 저것봐라" 式으로 寫眞을 찍고 야단이 났다. PINGKY가 이 사람들 집만 보면 미치는 사람들이고나 생각했을 것이다. 슈퍼마켙에 들려서 목을 축이고 또 떠나서 高級 住宅地域에 갔다. 그 地域 入口엔 門이 있고 私制 警官이 3, 4명 把手를 보고 通行 制限을하고 있다. 仔細히 보니 그 地域의 周囲엔 廣範하게 鉄條網이 쳐있다. 異常하게 생각된다. "住宅 地域에 웬 把手야?"물었더니 特殊層들만이 살기에 그렇다고 한다. "이건 非民主的이다.""이건 東氷庫 도둑村이구나""아니 마카티 도둑村이지" "比律賓도 特殊層이 있구나./ "말들이 많다" 구역내 어 골프장도 있다. 豪華 高級住宅들이 요란하다.

Pingky가 한집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모두 들어 오라고 한다. 主人과 이야기해서 内部를 보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Pingky의 着案으로 우리가 建築家들이라니 特別히 交涉해서 承諾을 얻었다는 것이다.

女執事가 案内해준다. 으리으리한 大邸宅이다. 主人이 누구며 무엇하는 사람이라는 건 묻지말라고 한다. 나는 "마르코스의 妾의 집이겠지" 했더니 설마하고 웃어댄다. 二層에 올라갔더니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한다. 지금 映畵撮影中이란다.

이 집 主人이 趣味로 映畵를 만드는데 録音까지 하는 模様이다. 廊下며 Hall에 電気線이 흩어지고 書斉옆 寢室에서 Action中이다. 나는 슬쩍 들여다보았더니 "이건 뭐야 모기장 같은 잠옷을 입은 美人이 寢台에 누어 있는데 5, 6명의 映畵関係者들이 카메라, 録音機, 反射板, 후랏쉬 등을 들고 作業中이다. 個人의 私邸에서 이런 짓을 할 程度이니 알만도 하다. 뒤곁 베란다에서 보니 뒷 뜰안엔 풀이 있고, 잔디가 있고, 꽃과 樹木이 너무도 豪華롭게 꾸며져 있다. 이 区域内에 이런 집들이 百数十棟있다. 別天地이다. 담이며 正門이며가 우리 青瓦台는 댈 것도 아니다. 後日 比律賓 建築家協会長에게 이 区域의 이야길 했더니 "그곳을 보셨군요." 하며 머리를 긁적거린다. 그의 말에 依하면 現在 마닐라에서도 말썽이 나고 있다고 한다. "当身도 그곳에 집이 있오?"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런 곳에 삽니까?" 다, 이런 地域의 発生은 어느 나라고 간에 物議가 나게 마련인 가보다. 그것은 冷情히 생각해보면 機械文明의 極에서 自由資本主義社会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겠으나, 그 社会의 人間들이 간직하고 있는 道徳観과 倫理度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리라. 自己가 獲得한 权力과 富가 正常的으로 얻어졌느냐가 더 큰 問題인 것이고 그로 因해 批判의 對象이 되는 것 같다. 그区域을 벗어나니 곧 高級商街가 있다. 이 区域의 専用商街이다. 우린 洋酒 한병과 若干의 안주를 사가지고 호텔에 돌아와서 오붓이 마시며 밤 늦게 까지 오늘 낮에 보고 느낀 이야기를 나누었다. Pingky는 가고 運転手 1명이 따라와서 同席했다. 그는 運転手로선 좀 教養이 있었고 알고보니 自己車를 観光社에 빌려주고 있다고 한다. 来日 自己車로 안내해 주겠다고 한다. 우린 한잔 얼큰해서 政治니, 社会니, 都市形成이니, 人間環境이니, 文明이니, SEX니, 広範囲한 이야기를 나누며 NIGHT CLUB이나 BAR에 가지도 못하고 호텔 방에서 술을 마시는 身勢를 오히려 흐뭇하게 생각했다. 마닐라 新聞에 GOD FATHER(代父)가 上映中임이 실려 있었다. 몇몇이 이 映畵를 보러 가자고 했다. 그것은 여기선 가위질을 안 했을테니 後日 서울에서 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代父는 原産地보다 宣転으로서 東南亜가 더 人気를 올리고 있는 듯하다. 거리의 飲食店에서도 "아름다운 日曜日"이라는 노래가 大流行이다. 이런 流行은 서울이나 東南亜는 거의 Timing이 맞는 모양이다. 時間이 늦어서 劇場에 못가고 콧노래로 代父의 主題歌를 흥얼댔더니 심부름 왔던 Boy녀석이 빙그레 웃는다.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런 노래를 다 하네 하는 表情이다. 낮에 車中에서 Pingky도 나의 콧노래를 듣고 돌아다보며 놀랍다는 듯이 "Is that good father?" 했다. 가만히 보니 이 親旧들 우리 一行을 流行도 모르는 시골뜨기인줄 알았나보다. 疲労의 快感과 自足의 喜悦에 찬 浪漫的인 밤이었다.

8月25日(土)

昨夜 約束한 運転手가 큰 車를 가지고 왔다. "바퀴오"는 比律賓의 名勝地이고 Bagsanjon은 瀑布가 있는 곳이지만 멀어서 갈 수가 없고 해서, Makaty를 다시 보기로 하고, 우리 大使舘과 比建築家協会

도 그곳에 있어서, 訪問 겸 떠났다. 食事는 늘 朝飯은 Hotel Restaurant에서 coffee와 토스트로 했다. 이젠 버릇이 돼서 제법 익숙해졌다. 가는 길에 큰 病院이 있기에 보고, 昨日보다 더 仔細히 보고 갔다. 우리 大使館에 갔더니 土曜日이라 休務이다. 이 Makaty 거린 아주 깨끗하고, 西欧에 못지 않는 거리이다. 우리 서울 永同地区도 이런 式으로 開発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었다.

Architect Center란 看板이 있어 無條件 들어가서 보았더니 各種의 建物資材가 展示되어 있고, 많은 사람의 相談에 応하고 있다. 이 建物은 8層인데 거의가 建築関係의 業種만이 모여있다. 1, 2層은 建物資材展示 및 相談이고, 위는 여러 設計事務室이며, 建設会社, 資材 Maker 会社이고 8層은 建築家들의 CLUB로 되어있다. 比建築家協会 住所며 会長을 찾았더니 責任者格인 紳士가 나와서 名喊을 주며 自己도 家協会員이라며 반갑다고 電話도 해주고, 説明도 해준다. 나도 名喊을 주었더니 "아 会長이십니까?"하며 큰 椅子를 가져오고 茶를 가져오고 야단이 났다. 그리고 곧 協会로 電話도 한다. "우리 一行이 6名인데 一部는 우리 大使館에 가있고 곧 協会로 찾아갈 것이라고 했더니"自己가 案内를 못해서 未安하다" 며 손을 비벼댄다.

前景哲氏가 金炯晩氏의 紹介狀을 가지고 있기에 Mr. CONCIO 事務室을 찾았다. 女職員이 親切히 對해주며 外出한 CONCIO氏에게 電話를 했더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곧 가서 뵙고 만나서 点心을 같이 하자는 連絡이 왔다. 그동안 事務室을 두루 求景하고 있노라니 釜山 東亜大学의 元교수가 廊下에서 우리를 보고 따라 들어왔다. 人事를 나누고 보니 그도 建築家이다. CONCIO氏가 와서 반가히 맞아준다. 昨年WAKER HILL에서 있었던 国土計劃学会 会議에 参席했다면서 寫眞帖을 내놓으며 보여준다. 그 寫眞帖에 羅相紀氏며 朱源氏며 나도 있었다. 여기에 내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 그때 왜 人事가 없었냐며 웃는다. 比律賓建築界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를 극진히 對偶해 준다. 같이간 運転手가 그것을 보고 어제부터 그렇게 作乱도 잘치고 弄도 잘하던 우리들이 여기서 對偶를 잘받는 것을 보고는 態度가 一変한다. 이 親旧들 普通내기들이 아니로군. 히히덕 거리던 사람들이 속은 딴판이였구나 하는 눈치이다. 그는 나를 自己車에 타라고하며 一行이 다같이 食堂으로 갔다. 좀 前에 갔던 ARCHITECT CENTER 8層에 있는 食堂이다. 8層 入口 HALL 壁을 보니 建築家들의 이름이 5~60名 걸려있다. 即 建築家들의 Member ship club 로 되어 있구나. 멋있는 余裕있는 짓이라고 느꼈다. 内部裝飾도 建築家 club답게 되어 있었다. 아주 高級 RESTAURANT이다. Mr. CONCIO는 比建築家協会 前会長이고 現会長은 出張中이란다. 貴賓用室에 모신다. 난생 처음보는 飮食이 다온다. 食事中에도 그는 禮儀를 지키며 나를 꼭 "PRESIDENT"라고 부른다. 壁에 걸린 彫刻을説明해 주고 飮食을 자꾸만 注文해서 얼마던지 먹으라고 勸한다. 우린 참말 배부르게 먹고 술도 마시고 旅行中 가장 豪華로운 食事를 했다. 食事後 MANGO가 나왔다. 그 果実의 먹는法을 가르쳐주고 자르지 않은 MANGO를 가져오라 해서 "WELL COME FRIEND KOREA ARCHITECT"라고 署名까지 해서 나에게 준다. 이 MAYGO는 가지고歸国했는데 집에와서 풀어보니 完全히 썩어서 버렸지만 고마운 마음씨였다. 우리는 膳物을 交換하고 記念撮影을 하고 相互協会가 会員交歓과 建築情報 및 出刊物交換 共同作品展示等을 協意하고 完全合議를 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의 建築家協会에서 大端한 對偶와 接待를 받았다. 나는 속으로 큰 빚을 진 느낌이다. 이사람들이 訪韓하면 나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하고 걱정도 됐다. 생각해 보니 泰, 比, 香港은 우리의 士協과 家協이 合친 性格이어서 協会의 予算이 豊富하나 보다. 그들의 出刊物이나 会誌만 보아도 알 수 있고, 協会事務室을 보아도 우리에 比해 確実히 富者協会인것 같다. 그저 부럽기만 했다. CONCIO氏의 말에 依하면 이 MAKATY計劃으로 家協会員들이 많이 参與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Mr. CONCIO 氏도 이 地域에서 自己가 設計한 建物들을 자랑한다.

다시 市内로 들어와서 台灣行 機票를 確認하고 一日延長 可能與否를 물었더니 可能할 것이라기에 安心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마닐라의 마지막 밤이라 모두들 밖거리로 나갔다. 나는 혼자 호텔에 남아서 이때까지 써 오던 日記를 整理하고, 数週間 해온 旅行을 回想해 보았다. 그저 바쁘기만 했고, 腦裏에 整理된 것이 없고, 旅費와 時間과 스케줄에 끌려 다닌 것만 같다. 短時間内에 貨幣와 言語와人種과 風物이 変했으니 머리속의 "콤퓨터"가 미쳐받아 消化를 못시켜서 어리둥절하고 머-ㅇ하기만 하

다. 記憶喪失症에 걸린 것만 같다. 그 数많은 光景들이 走馬灯같이 휙휙 지나만 간다. 만일 日記라도 쓰지 않았더라면 歸國해서 整理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밤늦게 모두가 우르르 돌아왔다. 그런데 Pingky도 같이 왔다. 밤거리를 求景하고 호텔로 돌아와 보니 Lobby에 Pingky가 있기에 데리고 올라왔다는 것이다. 金兄이 記念으로 太極扇을 주니 몹시 좋아한다. 밤12時가 다 되었으니 재미있는 우리 一行과 헤어지는 것이 아쉽다면서 歸國하거던 便紙와 寫眞을 보내달라고 한다. 그러나 一行이 그를 그냥 보낼리 없다. "못간다 오늘 밤새도록 우리와 이야기나 하자"고 문을 막으니 울쌍이 되어서 제발 通禁時間이 다 되었으니 보내달라는 것이다. 나는 보내주라 했으나 듣지들을 않는다. 結局 全員의 뺨에 "키스" 를 해 주면 보낸다는 意見이 나와서 한사람씩 뺨에 키스를 해주었다. 門을 열고 廊下로 데리고 나와서 빨리 가라 했더니 그는 正色을 하고, "참 여러분들은 明郎하고 재미있다고 하며 여러분을 記憶하겠으며 安寧히 돌아가십시오"하며 아쉬운 表情으로 握手를 하고, 긴 복도를 돌아 보며 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을 보고 異常스럽게 感傷이 掩襲하기에 나도 모르게 픽 웃었다.

8月26日 (日)

마닐라発 10時半CI 812機便으로 대만으로 떴다. 二時間도 못되어 대북에 到着했다. 비가 오락가락 한다. 대만은 外国人들이 FORMOSA라고 한다. 이것은 SPAIN 船員들이 멀리 海上에서 대만을 바라보고 너무나 아름다워 自己네 말로"OSA!FORMOSA. (오-아름다운 섬이여!)"라고 한 것이 그대로 口伝되어 FORMOSA라 불리워 졌다고 案内書에 적혀있다. 그럴듯한 詩的인 이야기다. 機上에서 본 대만의 印象은 果然 OSA! FORMOSA였다. 꼭 우리 済州島와 같은 모습의 섬形態이고, 숲과 海岸線의 屈曲이 몹시 아름다웠다. 방콕의 玉先生의 紹介状을 가지고 온 바라 그냥 택시로 中央飯店(CENTRAL MARINE HOTEL) 으로 가자고 運転手에게 中国語로 했더니, 그가 놀라며 쳐다본다. 空港에서 市内까지는 가까웠다. 거리 모습이 어딘지 日本과 中国의 MIX된 느낌이다. 清潔하고 閑散해 보인다. 호텔은 이름대로 市内 中心에 있었다. 매우 큰 호텔이다. 張志雷 総支配人에게 玉先生의 紹介状을 伝하니 일어서서 中国式으로 鄭重히 人事를 하며 玉先生과는 中国에서 同窓이라고 하며, 崔先生님은 玉先生과 独立軍同志이시니 貴한 손님을 맞아 반갑다고 英語로 말한다. 나는 中国語로 張先生을 만나니 반갑다고 하고, 우리 一行은 6명인데 다 建築家들이라 하니, 알겠다고 하면서, FRONT職員을 불러서 房을 3개로 配置하고, 잘 모시라고 타일른다. 퍽 고마웠고 後에 안 일이지만 그의 徳分에 우린 좋은 房을 얻었고, 担当 BOY들이 저희들끼리 支配人의 同窓이라면서 수근거리고 아주 親切히 해주었고 20%나 宿泊費도 DISCOUNT해 주었다. 가랑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어서 総統府(장개석 総統이 있는 곳)로 가보았다. 우리 中央庁같은 様式의 建物인데 규모가 우리의中央庁보다 퍽 적다. 前面大路街며 어쩌면 우리 中央庁의 앞길 같다. 韓国飲食店이 台北市엔 많다고 하여, 그중 한 집에서 저녁을 하는데 옆자리의 젊은 夫婦가 꼭 韓国사람 같아서 먼저 말을 걸려는데 그가 우리 一行에게 먼저 " 韓国분들 아니세요"한다. 우리는 "아 당신도 韓国분입니까?" "아니요. 저는 中国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오래 살았지요. 医師입니다. 中央日報社앞의 西小門 에서 살았지요."한다. 그의 婦人도 유창한 한국말로"여기온지 6個月인데 곧"하와이로"갑니다.한다.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태어났고 明洞華僑学校出身이고 카토릭医大를 卒業한 사람들이니 반은 韓国人인 셈이다. 이 飲食店 主人도 中国人인데 서울에서 온지 5年이 된단다. 그러니 다 韓国通인 셈이다. 밤거리를 걸어서 호텔로 돌아와 15層의 屋上 回転食堂에 가서 台北의 밤거리를 보기로 했다. 그러니 15層이면 台北에서는 높은 建物이 된다. 이름이 回転食堂이지 엉망이다. 外部空気와 内部 AIR CON과의 差異로 유리창에 김이 끼어서 밖이 잘 보이지 않는다. 2중 유리창도 없고, 비상 階段도 옆집 屋上으로 連結되어 있고, 이웃집의 Cooling Tower가 가리어서 내다 볼 수가 없는 곳도 있다. 우리는食事後라 coffee한잔씩만 시켰는데, 計算書를 보니 이게 웬일인가? 60NT(台湾弗)式 5人이 326NT이다. 자세히 보니 coffee한잔이 6NT인데 이 食堂은 一人当 무엇을 먹든지 最少 60NT로 되고, 먹은 coffee 5잔 30NT分의 税金과 government tex까지 包含해서 326NT이다. 되게 비싼 coffee를 마셨다. 欧美나 호주, 東南亜 각지에서도 coffee 한잔에 서울같이 50원 하는 곳은 없다. 거의가 換算하면 100원에서 200원 사이인데 台北에서는 600원이상의 coffee를 마신 꼴이 된다. 작년 Rome에

서의 300원짜리가 一生에 가장 비싼 것이었는데記錄을 更新한 것이 된다. 台湾에 와서 느낀 것은 "무슨 稅金이 그리도 많은가"이다. 事事件件에 稅金이다. 우리는 웃어대면서 房에 내려와서 Boy를 불렀다. 그에게 各房에 있는 冷藏庫속의 맥주며주수등은 모두 꺼내놓고 Blue Movie를 불러올수 있느냐? 했더니 自己 親旧가 올 수 가 있다고 한다. 約 20분후 젊은 친구가 映画를 가지고 와서 上映했는데 約束이 틀린다. 우린 16M/M이고 Color에 토키라야 한다고 했는데 8M/M이고 黒白이 섞여 있고 물론 토키는 아니다. 하도 시시해서 100NT만 주고 가지고 가라고 했다. CAL에서 電活가 와서 서울行票가 一日 延長해서 28日出発해도 좋다고 한다. 와— 하고 함성이 터졌다. 꼭 보고 싶은 古宮博物館을 볼 수가 있으니 말이다. 만일 延長이 안되었다면 来日 아침 11時에는 떠나야 할 판이었다. 신들이 나서 来日에 볼 곳을 계획했다.

古宮 博物館이 為主이고 有名한 北投(페ー토우)나 桃源(또우유안)도 보기로 했다. Hillton호텔 竜山寺 陽明公園等을 追加해 보니, 来日의 계획이 꽉 짜인다. 都市가 적으니 観光社를 찾을 必要도 없고, 택시로 구경하기로 했다. T·V의 스위치를 돌렸더니 美国東部의 어느 都市에서 열리고 있는 世界幼年 野球 決勝戦인데 台湾의 거인팀과 美国팀과의 対戦이다. 이 幼年野球는 작년에 서울에서 予選이 거행되었지만 우린 台湾에 12：0으로 지고, 대만이 連二年 世界制覇를 했다. 그런데 今年 또 16：0으로 이겼다. 대만市中은 온통 축제기분이다. 장경국 総理며 三軍総司令官이 祝電을 보내고, 그날 夕刊에 一面 전면이 幼年야구消息 뿐이다. 하기야 이 적은 나라가 오직 世界頂上을 오를수 있는 唯一한 部門이니, 이해가 가겠지만 試合光景을 보면, 너무도 一方的이어서 美国의 어린選手들의 울상이 된 表情이 애처러워 보인다.

台湾은 G.N.P가 우리의 三倍나 되나 事実은 4倍가 넘는데 적게 발표를 한다고 한다. 우리와는 正反対이다. 그들은 오붓하고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다. 땅덩어리가 적으니 外貨를 観光에 置重할 수밖에 없다. 前記한「北投」나,「桃源」이 모두 台北郊外에 적은 都市로서 完全히 観光為主의 환락가이다. 各国의 女子들을 雇傭해서 酒色을 提供하고, 政府管理의 娯楽処이다. 이것이 旅行者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遠征오는 "돈환"들도 있고,「北投」만으로는 不족해서 近年에「桃源」이 생기고, 毎年 政府의 検診이 엄하게 실시된다고 한다. 一行中 몇사람이 훗날「桃源」을 가 본 재미있는 이야기 한토막. 이들은 밤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빼토—빼토—"(北投)를 連発하니 운전수(40세가 넘은)가 "네 알고 있읍니다"라고 日語로 하기에 "에키 되었구나"하고 그 다음부터는 日語로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는 台北에선 이제「北投」는 時勢가 없고 새로 始作된「桃源」이 더 좋다기에「桃源」으로 달렸다고 한다. 市内에서 20哩程度를 가니 紅灯街 武陵桃源이 아닌 진짜「桃源」이었다고. 家屋같이 꾸며진 한 집에 들어갔더니 女子들의 写真이 Living Room에 많이 걸려 있어 그 中에서 골라서 指命을 하니 数分内에 늘씬한 젊은 女性들이 2名이 들어와서 人事도 없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完全裸体로 곁에 와서 人事를 始作하고, 술이며, 果実을 권하고 옆房은 寝室이며, 부엌이며, 욕실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술마시고, 목욕하고, 寝室에 가서 또 술마시고 万事가 純裸体로 進行된다는 것인데, 一行들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골사람같이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는 것이다. 約束한 2時間이 끝나자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無表情하게 옷을 주워입고 簡単한 人事 한마디 던지고, 지극히 事務的이고 機械的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이다. 하도 기가 막혀서 計算을 하고, 택시로 돌아와 버렸다는 것이다. 아무리 환락가이라도 人情머리가 없고,「桃源」커녕 栗源도 못된다는 総評이다. 그래도 台湾政府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外貨를 획득해야 하니 同情도 간다. 市内 各処에는 大규모의 호텔들이 新築中에 있다. 商街도 몹씨 흥청거린다.

근래 日本이 中共과 접근해서 反日感情이 大端하다고 하며 反面에 韓国에 好意를 갖고 있다. 이런 경향은 東南亜 各地에서도 느꼈다. 有名한 金門島

대북 古宮 博物館 前面階段에서

를 못가보는게 限이다. 日本名「新高山」이나「阿里山」等의 高峰의 開発도 大端하다고 들었다. 小学時에 教科書에 나온"呉鳳의 이야기"는 有名하다. 즉 阿里山中의 台湾原住 食人種들이「오봉」이란 自己네 指導者를 죽이고 부터 食人癖을 없앴다는 애절한 이야기다. 아직도 深山에 약간 남아 있는데, 이들은 人間의 頭骨을 담근 人頭酒를 아직도 만들고 있다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許多하다. "사욘의 鐘"이란것이 있다. 山中의 原住民 부락의 적은 分校場에 日本에서 師範学校를 갓나온 젊은 先生이 赴任해서 잘 가르쳤는데 転勤하게 되어 그의 짐은"사욘"이라는 女学生이 져나르다가 渓谷에 떨어져 죽었다. 그 学生은 속으로 先生을 사모했었다. 師弟間의 애처로운 이야기가 伝해지자 女学生이 죽은 渓谷에 鐘塔을 세우고 鐘을 달았는데 〃사욘의 鐘"이라 해서 지금도 観光地로 되어있다고 한다. 日帝時엔〃「阿里山」의 蠻人"이라면 有名했고, "生蠻"이니 "成蠻"이니 구분되어 있었다. 그들이 都市에 나와 어름을 사가지고 집에 가보니 다 녹아버려서 화가나 創을 들고 그 어름집을 襲撃했다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다.

8月27日 (月)

아침 일찍부터 古宮 博物館에 갔다.

「陽明山」 중턱에 순中国式의 建物로 규모도 크고 주변의 景致도 매우 아름답다. 4層으로 된 展示場에는 기가막힌 遺物들이 꽉 차있다. 아마도 세계 어느 박물관도 이처럼 内容이 充実한 박물관은 없을 것이다. "루-불" "大英" "아데네" "바디칸" " 화란 国立" 뉴욕"等 거의 다 보았지만 이 「대북박물관」만치 年代가 오래 된 遺物과 그 広範한 種目을 가진 곳은 처음이다. 이山 중턱에 어마어마한 洞굴이 있고, 그 속에 全展示物을 2개월마다 완전 交替하는 三年分의 在庫가 있다하니, 상상도 못할 일이다. 中国본토에서 이 많은 物件을 어떻게 운반했는지? **장개석**씨의 말에도 이박물관만은中国本土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니 알만하다. 年代別로 区分되어 전시된 유물들은 글이나 말로는 表現하기가 어렵다. 一行은 그저 입을 벌리고 넋을 잃고, 돌아보았다. 印尼의 木刻이 좋고,「泰国」의 佛像이 어떻고가 問題가 아니다. 상아에 조각한 細微한 부분엔 확대경이 놓여있다. 육안으로 안 보이는것은 확대경으로 보니 어떻게 저렇게 세부까지 조각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神이 만든 것같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古代中国의 匠人들은 목숨을 걸고, 一生에 하나밖에 못 만들 일을 했다. 잘못 만들면 王命으로 断頭했으니 一辺 생각하면 古代芸術人들의 受難의 証拠物이기도 하고, 목숨을 내건 決死的인 製作史이기도 하다. 精神없이 돌아보다 그만 지쳐서 판매부에서 족자 하나와 王의 친필書芸책을 하나 사가지고 나왔다. 푸른「陽明山 公園」이 눈을 시원하게 한다.

구내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하고나니, 무덥고 시무룩하게 비가 내리고 있다. 빗속을 달려서 竜山寺에 갔다. 原色으로 지붕까지 장식한 괴상한 佛寺이다. 조각기둥의 精巧함은 말할 수가 없다. 나는 향을 사서 佛前에 바치고 꿇어 앉아서, 우리 旅行에 무사를 기도했다. 그 꼴을 누가 사진을 찍었다. 아내일(28일) 오후 1시면 서울에 간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 아무런 事故도 없이 다들 健康히 旅行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佛教人이 아닌 나도 佛前에 香을 피운 것이다. 無辺広大한 佛陀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즐거운 旅行을 하게 인도해 준 것만 같았다. 저녁 후 최종의 Party를 하기로 하고, 몽고요리(진짜 징기스칸 요리)로 会食을 하고 자유행동을 하기로 했다. "清都"란 집에 가서 羊고기와 몽고주로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北投」로 가는 派 쇼핑하러 가는 派 각기 기분대로다. 나는 印鑑店舗에 가서 조각류의 상아를 사서 도장 하나를 記念으로 새겨가지고 호텔로 돌아왔다. 혼자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중국과 대만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현재 대만인들 중에는 中共의 1개 省이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層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율빈의 40% 人口가 미국의 1개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이다. 中共本土에 있는「万里長城」이나「紫錦城」「大同雲岡」의 佛洞「承徳」의「라마寺院」「洞庭湖」「楊子江」「黄河」「泰山」 이러한 巨大한 自然과 文化를 버리고 대만에서 바둥대는 장개석씨의 입장도 가련하기만 하다.

내 나이 20代에 軍馬를 타고 뛰놀던 그 中原의 광야엔 人民会社의 집단농장이 들어서 있으리라. 나는 그 때 끝없는 地平線을 바라보며 馬上에서 엉뚱하게 **손문**先生의 **삼민주의**란책을 읽었지. 지금도 그 유명한 한 구절이 잊혀지지 않는다. 三民主義란 中国을 소생시키는 **민생, 민권, 민족,**을 바탕으

로한 혁명사상이고, 銘에 勢力이 均等하고 利害가 相反하면 반드시 전쟁이발생한다는 어구는 나의 一生에서 잊 을 수 없는語句이다. 이때까지의 人類史는 이 말대로 進行해 왔다. 아마도 장개석씨도 이것을 잘 알고도 남을 것이다. 그가 대만의 古宮박물관을 본토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한 뜻은, 정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직 漢民族의 문화가 정권의 체재보다도 앞선다는 뜻일 것이다. 즉 장개석체제나 모택동체제보다도 한민족의 문화유산이 더욱 비중이 크다는 원대한 소견인 것이다. 후덥지근한 房空気에 견딜 수가 없어 잠이오지 않기에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사람이 없는 고요한 대북 밤거리에 네온만이 가랑비 속에 가물거리고 있었다. 밤에 서울에 전화를 해서 協会를 통해서 각자 가정에 연락을 해 달라고 했다. 내일 오전중엔 가족들이 다 돌아가는 시간을 알게 되겠지.

8月 28日(火)

짐을 꾸리고 張支配人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공항에 나와서 金漢根氏는 먼저 東京으로 출발했다. 免税区内에서 近 1개월의 旅行에 한 사람만이 헤어지니 몹시 섭섭했다. 3일후면 또 만나겠지만이 별이란 늘 쓰디 쓴 것이다. 약 15분후엔 우리도 서울行機에 搭乘했다. 우리의 南海多島海는 어느 나라 보다도 아름다웠다. 제주도는 대만과 같이 "오사-포모사"이다. 한라산은 구름에 덮혔고, 海岸의 어촌이 잘 보인다. 비행기는 목포, 군산쪽을 옆보며 北上한다. 김제 만경평야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과연 금수강산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무엇을 얻었나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얻은 것은 없지만 느낀 것은 많다. 建築家는 건축만을 공부하고 보아야 한다는 점은 없다. 물론 많은 建物을 보았다. 특히 SYDNEY OPERA HOUSE는 興奮하고 感動할만 했다. 많은 人種과 風物과自然을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야기도 해 보았다. 그렇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자신의 머리속에 피부에 실감있게느낀 것은 단 하나 뿐이다. 그것은 語学에 対한 것이다. 호주를 제외한 우리가 본 동남아 제국은 확실히 우리보다 水準이 아래이다. 뭐니뭐니 해도 東洋에서는 日本, 中共, 韓国이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부러운 것은 語学이었다. 비율빈은 물론이고 馬来도 泰国도 英語가 잘 통용된다. 싱가폴이나 香港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말끝마다 発展이니, 向上이니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文化의 発展이요 向上이다. 그 문화가 서구문화요 機械文明이겠은 즉 西欧化한다는 말이 된다. 그들은 교육수준이나 기술이나가 우리보다도 못하면서도 西欧化하는데는 우리보다도 앞서고 있다. 우리는 学術이나 관광개발이나 다 그들보다 양호한 여건하에 있으면서도 이를 미처 개발 못하고 있는 것같다.

적어도 国際社会에 참여할 뜻이 없다면 民族性이니 伝統이니 고유니가 重要할 것이다. 현재 싫어도 国際社会에 들어서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하면 살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서구문명에로의 빠른 길은 어학이 문제가 된다. 英語를 완전히 MASTER하려면 15年은 보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15년의 핸디캡은 늘 가지고 있게 된다. 수많은 設計事務所의 図面을 접해 보았다. 거의가 영어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오직 단 한가지 영어를 잘 한다는 理由로해서 우리보다 쉽게 서구화 되어가고 있다. 즉 国際社会에 同化되어 가고 있다. 甚한 말 같지만 우리도 国民学校서 부터 英語를 가르쳐야겠다고 느꼈다. 의사소통이 안되면 어찌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기술을 전달이나 발휘할 수가 있겠는가. 韓国的인 思考方式은 대담하게 버리고 국제조류에 따라야겠다. 建築界의 경우 공부할 사람은 欧美쪽으로 가라. 生業을 할 사람은 어렵게 가서 대우도 못받는 구미보다 오히려 東南亜나 호주쪽으로 가라고 권하고 싶다. 가기쉽고 대우도 받고 실력발휘도 할 수있기 때문이다. 自然조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다. 그 무성한 熱帯樹를 한국에 가져와도 살릴 수 없겠고, 우리의 기후에서는 三毛作할 수도 없으니 별도리가 없고 고무나 커피를 생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보면 人為的으로 努力과 지혜로서 일할 수 밖에는 없다. 어학이나 思考를 西欧文明쪽으로 발돋음해야 된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劣等意識을 가지고 있는 것같다. 이번 旅行에서 보고 만난 그들이 우리보다 훌륭하다고 느낀적은 없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그들의 底力인 것 같았다. 거리의 순경과 군인이 보이지 않아도 秩序가 있었다. 明洞같이 華麗하고 사치스러웠지만 바닥에는 순박함이 엿보였다. 이런 것을 보고 느꼈지만 돌아온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地境이다. 안타깝기가 그지 없다. ■